

광주 살아? 이 앱 들어봤어?
 1만여개 항목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하면서 갖춰진 탄탄한 인맥을
 활용,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구정에 풀어나기 위
 함이다. 특히 그는 고공리, 고힌을, 고물가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정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사회주택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복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를 만나 민선 8기 3년을 돌아보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광남일보

쾌적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DK 다케이 주식회사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광주형상공가 | 광주형상가 | 광주형상가 | 개승가 | 관안지모드 | 광주형상

“민생경제 회복...구민 모두 행복한 복구 완성”

광남초대석 **문인 광주 복구청장**

문인 광주 복구청장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구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를 행정에 녹여내기 위해 골목골목을 살피고 있어서다.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하면서 갖춰진 탄탄한 인맥을 활용,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구정에 풀어나기 위함이다. 특히 그는 고공리, 고힌을,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정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사회주택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복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 민선 8기 3년을 돌아보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7월 7일부터 골목상권이 밀집된 현장을 찾은 '골목 골목 경청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더운 날씨 탓에 장사가 안돼 속 끓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무더위는 주저함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 복구에 위치한 점포시장 4개소, 전문상점가 4개소, 골목형 상점가 32개소를 찾은 계획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사업인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깊숙이 뿌리내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첫 번째 사회주택이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어르신 돌봄 특화형 주택 1개소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입주자에게는 최장 10년 거주를 보장하며 2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공유오피스·헬스케어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복구형 사회주택은 단순 임대주택을 넘어선 주거와 복지가 통합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말 전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허가를 승인했지만, 교통 문제를 우려했다.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는 시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사업이고, 광주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이를 살펴볼 때 기대감 그 이상의 깊은 고민이 있었다. 특히 교통 문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더현대 광주의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서 광천역 일대는 이미 하루 13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광천권 대규모 재개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으로 이미 교통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근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개발사



문인 광주 복구청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6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 활짝...재정여건 개선 국민 주치의제·사회주택 조성 등 기본사회 실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경제 활성화 행정력 집중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 복구가 어느덧 3주년이 지났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치·경제적 불안함으로 인해 민생경제에는 극심한 침체가 드러났고 구민의 혼숨은 늘어만 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민의 삶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민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43만 복구가민이 행복한 복구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본사회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두 분야에서 진행 하고 있다. 바로 전 국민 주치의제도와 사회주택 조성이다. 먼저 전 국민 주치의제도는 개인별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의사회 등 관계 기관들과 TF를 구성했고 1차 의료 중심 주치의 제 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전문기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국정기획위원회 흥승권 교수 등과 심포지엄을 개최, 복구형 주치의제 실행 전력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전 국민 주치의 추진단을 신설하고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기본 주거 실현을 위해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복구가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축대입 임대 거점화 모델을 지역에 도입한 첫 번째 사례로, 2027년까지 총 3개소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손을 잡고, 먼저 156세대 규모의 청년도약주택 2개소를

업이 완료되면 약 1만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최대 20만대까지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현대 광주 입점 시 연간 방문객이 3000만명에 달한다는 용역 결과도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연결을 교통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개통은 2032년으로 예정돼 있어 복합쇼핑몰 개장 시기인 2027년과 최소 5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주민들께서 쇼핑물을 이용할 때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복구는 복합쇼핑몰 입점 시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대준 전남대 공업연구소 교수에게 일선방직 주변 교통개선대책 연구 용역을 시행했고 광천사거리 입체화, 광주전 도로 확장, 빛고개로 연결 등 총 22건의 교통개선대책을 광주시에 공식 제안했다. 비록 광주시는 복구가 제안한 교통 대책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교통대책이 병행되어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광주시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작년 5월 무등산 국립공원 내 화암동에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가진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광주 최초이자 전국에서 26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이후 복구는 주민들의 일상과 습지를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여력이 탐사대, 시민 과학 생태학교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복구는 2031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목표로 3단계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생태교육 센터 설립 등 환경조성부터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29년 후보지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받으면 친환경 람사르 로고를 지역 농산물,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차분히 절차를 밟아나가 반드시 인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에 더해 4수원지와 청풍습지를 잇는 '생태쇼

체험길'과 충민사 옆 '생태쇼어링' 조성사업을 추진해 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다. 나아가 무등산과 영산강, 담양습지부터 원산보를 잇는 생태축을 기반으로 하천습지와 내륙습지를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자치구다. 복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경쟁력 삼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도시 복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8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워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마지막 1년은 그동안 준비하고 다듬어 온 정책들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복구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 위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촘촘하게 다듬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 좋은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크게 목소리를 내겠다. 남은 1년 동안 구정 전반에서 실용적인 정책 추진에 집중해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문인 청장님이 '골목 경청투어'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주민들의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생수를 나눠주고 있는 문인 청장님.



문인 청장님이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